

아주IB투자, IPO흥행요소 갖춰 코스닥 시장 접수 나선다!

VC 대어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코스닥 입성 카운트다운

- ▶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여준 투자성과 & 미국 바이오 투자 결실로 성장성까지 장착하고 상장채비 완료
- ▶ 변동성이 큰 VC 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1등주/대장주의 코스닥 입성 예고
- ▶ 코스닥 상장으로 진정한 Global VC 리더 약속

초대형 VC의 IPO대전을 알리는 서막이 올랐다.

VC 국가대표 아주IB투자(대표이사 김지원)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입성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고 17일 공식발표했다. 지난 4월 주관사 계약을 시작으로 IPO를 공식화한지 6개월만이다.

아주IB투자는 아주그룹 금융계열사로 대한민국 최초의 VC이자 국내 VC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독보적인 성장역사를 써온 만큼 내재가치만으로도 VC업계 재평가 기회는 물론 최근 상장된 VC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VC 1등주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아주IB투자 김지원 대표는 “투자자 눈높이와 시장 친화적인 입장에서 이번 코스닥 상장을 준비한 만큼 성공적인 IPO를 통해서 아주IB투자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VC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주IB투자가 이번 공모를 위해 제시한 공모밴드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총 공모규모는 488억원에서 586억원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2,440만주, 상장후 시가총액은 밴드상단 기준 2,908억원이다. 수요예측은 11월 6일~7일 양일간 진행되며, 11월 13일~14일 청약을 거쳐 빠르면 11월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 공동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았다.

아주IB투자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펀드 대형화 및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성장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펀드 운용 규모를 늘려 투자와 이익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투자(보스턴, 실리콘밸리)를 확대하고, 해외투자펀드의 결성을 증대하는 등 글로벌 VC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그동안 아주IB투자가 걸어온 반세기는 업계 최고, 업계 최초, 업계 유일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실제로 아주IB투자는 ▲펀드운영 규모 ▲ 변동성을 뛰어넘는 수익성 ▲강력한 맨파워 ▲최초의 미국 바이오 투자 직접 진출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 VC를 대표한다.

아주IB투자는 2010년에는 160년 역사의 글로벌 화학회사인 Solvay로부터 아시아 최초 벤처펀드 운영사로 선정되어 첨단 소재 분야 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2018년 현재 약 1조 4천억원 펀드 운영 규모, 반기기준 14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경영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아주IB투자는 2013년 국내 벤처캐피탈 최초로 세계 바이오헬스케어의 허브(hub)인 보스턴에 직접 진출한 이후 짧은 기간 안에 투자한 기업 14개 중 11개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국내 최초 정책기관 출자자 없이 순수민간 투자자만으로 1,230억원의 해외 투자펀드 결성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VC의 경쟁력과 성장방향을 제시한 롤모델로 기업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결성한 1,230억원 펀드에서는 글로벌 빅파마가 기존의 약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PROTAC 분야에 있어서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하는 바이오 벤처에 RA Capital, OrbiMed 등과의 공동 투자, Lily Ventures, Amgen Ventures, Celgen, Merck 등과 항암제 ADC 분야 바이오 벤처의 공동 투자 등 펀드 결성 1개월만에 2개의 업체 모두를 나스닥에 입성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회사측은 “아주IB투자는 상장 이후에도 국내 1등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벤처캐피탈 시장인 미국투자에 더 많은 역량을 집결시켜 진정한 글로벌 VC로 도약함으로써 주주와 함께 성장결실을 나눌 것”이라며 “아주IB투자의 IPO 여정이 곧 국내 VC 산업 내 성장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관사 관계자는 “최근 상장된 VC의 부진한 주가흐름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지만 펀드 운영규모, 변동성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수익성, 세계 최대 VC 시장인 미국 바이오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아주IB투자의 IPO가 기 상장된 VC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 해소, 뒤이어 진행 중인 타 VC의 IPO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성과 수익성, 미국 바이오 투자를 통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아주IB투자가 시장의 변동성이 큰 VC 산업 내에서 1등주, 대장주라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IPO 흥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문의 : 아주IB투자 노영철 경영지원실장 (02-3451-9232) / 전상우 기획팀장 (02-3451-9293)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10-7139-5888)

<참고자료>

[아주IB투자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8 년 10 월 16 일
수요예측	2018 년 11 월 6 일 ~ 7 일
청약	2018 년 11 월 13 일 ~ 14 일
코스닥 상장	2018 년 11 월 중
공모주식 수	24,400,000 주
주당 공모가액	2,000 원 ~ 2,400 원
공모 금액	488 억 원 ~ 586 억 원
공모 후 주식수	121,154,050 주
예상 시가총액	2,423 억 원 ~ 2,908 억 원